

북촌 튼□자형한옥의 유형연구

송인호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주제어: 북촌, 도시건축유형학, 도시조직, 유형, 도시한옥주거지, 튼□자형한옥,

1. 서론

한양의 옛 지도를 보면 도성은 북악과 인왕과 목덕과 낙타, 이렇게 네 산으로 둘러싸여있고, 산의 능선을 따라 성곽이 둘러쳐져있다. 중심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서 경복궁이 자리하고 있고, 그 동편에 창덕궁이 나란히 놓여있다. 북촌은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윗대 중앙에 입지한 북촌은 별이 잘 들고 물이 잘 빠지며 남쪽으로 좋은 경관을 가질 수 있어서, 도성 내에서 가장 좋은 주택지로 일컬어져 왔다.¹⁾ 남북방향으로 흐르는 몇 개의 물길을 따라 각각 능선을 경계로 삼청동, 안국동, 가회동, 계동, 그리고 원서동이 나란히 놓여있다.

북촌지역은 1930년대에 울곡로가 확장되면서 도심으로부터 구분되고, 1980년대에 북촌길 등 동서방향의 도로가 신설되거나 확장되면서 도시조직이 크게 훼손되었다. 옛날 별궁이나 관아 자리였던 큰 필지에 고층건물이 들어서고²⁾, 한옥보존

지구 해제 이후 한옥이 철거되고 다세대주택들로 개발되면서, 북촌의 역사경관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단락되어있으나 한옥과 골목길이 함께 남아있고, 양 궁궐 사이에 놓여있다는 입지조건 덕분에, 북촌은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주거지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북촌에는 900여 채의 한옥이 남아있는데, 지붕형태로 보면 □자형을 기본으로 하는 한옥은 약 140채 정도이다. 네 모서리가 ‘단힌 □자형 한옥’도 있고 마주보는 모서리가 열린 ‘튼□자형 한옥’도 있다. 이 논문은 현재 모서리가 단혀있는 □자형한옥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서리가 열려있는 북촌의 59채의 튼□자형한옥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³⁾

이 논문의 목적은 북촌의 튼□자형한옥의 유형을 정의하는 것이다. 연구내용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하나는 1985년 가회동 한옥보존지구 실측조사이후 2001년 북촌가꾸기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2004년 현재 이르기까지 지속된 현장실측조사를 바탕으로, 북촌의 튼□자형한옥의 건축조건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다른 하나는 서울 주변 경기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경기형민가의

본 연구는 2003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1) 조선의 건국공신 정도전이 지은 ‘신도팔영(新都八景)’ 중 ‘제방기포(諸坊基布)’라는 시에 ‘대갓집은 구름 위로 우뚝 솟았고, 여염집은 땅에 가득 서로 닿아있네(第宅凌雲屹立 閭閻撲地相連)’라는 구절이 있다. 한옥들로 가득했던 도성의 경관을 연상케 한다.
- 2) 북촌 계생방(계동)의 송문원(계동궁)터에는 휘문고보가 있었는데, 1980년대 강남으로 이전한 후 현대건설사옥이 지

어졌다. 광혜원터에는 창덕여고가 있었으나, 강남으로 이전한 후 헌법재판소가 들어섰다.

- 3) 80여채의 네 모서리가 ‘단힌 □자형 한옥’도 평면구성 ‘튼□자형 한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대지조건 때문에 모서리가 단혀있어 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튼ㄱ자형 한옥과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북촌의 튼ㄱ자형한옥유형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북촌의 튼ㄱ자형한옥이 대지에 놓여지는 방식에 따라 변형되는 모습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 변형의 모습은 유형의 특성을 잘 드러내줄 것이다.

2. 도시건축유형학과 튼ㄱ자형 한옥

1) 튼ㄱ자형한옥의 이름

곶은자형 안채와 곶은자형 바깥채가 안마당을 사이에 두고 배치되어있는 주거유형을 경기형민가, ㄱ자집, 튼ㄱ자집, 맞고패집 등으로 부른다. 네모서리가 닫힌, ㄱ자집을 안동지방에서는 뜰집이라고 부르고, 남쪽으로 열린 ㄷ자집을 강화도에서는 튼입구(口)자집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처럼 평면의 형상을 기준으로 붙인 이름은 마치 상형문자와 같이 평면의 구성방식을 표상하고 있다. 한글자모의 ㄱ자와 같이 ㄱ자집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집의 중심에 안마당이 있고, 그 주변을 방과 마루가 에워싸고 있는 집을 쉽게 연상할 수 있다. 유형의 이름은 도시맥락과의 관계, 평면구성원리, 그리고 구축방식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한옥이라는 이름에 이미 나무맞춤구조라는 전통적인 구축방식이 함축되어있고, ㄱ자라는 한글자모에는 안마당을 중심으로 실들이 구성되는 중정주택의 구성원리가 함축되어있다.

그러나 튼ㄱ자집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몇 가지 모호함을 갖고 있다. 가령 논산 노성의 윤증고택과 같이 ㄷ자형 안채와 일자형 행랑채가 ㄱ자를 이루고 있는 경우나, 달성 묘동의 삼가헌과 같이 ㄷ자형 안채와 ㄴ자형 사랑채가 ㄱ자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튼ㄱ자형으로 부르고 있다.⁴⁾ 네모서리가 닫힌 ㄱ자형과 견주어, 채가 분절되어 모서리가 열린 한옥을 통칭하여 튼ㄱ자형으로 부르고 있다. 한편 ㄱ자형(또는 역ㄱ자형) 안채와 ㄴ자형(또는 역ㄴ자형) 바깥채만으로 한옥을 구성하고 있는, 경기지역의 튼ㄱ자형 한옥을 다른 지방의

튼ㄱ자 한옥과 구별하여 ‘ㄱ자형 한옥’으로 불러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ㄱ자형 한옥’이라는 이름은 자칫 ‘ㄱ자’와 ‘ㄴ자’모양의 안채나 사랑채, 그 건물자체에만 논의가 한정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우리 한옥의 유형적 특성이 ‘채로 에워싸인 안마당’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상기할 때, ㄱ자의 도상이 갖는 의미는 여전히 다른 이름에 표상된 의미보다 더 중요하다.

어떠한 이름이 가장 적절한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다음 기회에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안채와 바깥채가 마주보면서 배치되어, 모서리가 트인 ‘튼ㄱ자형 한옥’을 네모서리가 닫힌 ‘ㄱ자형 한옥’에 상대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자한다. 그리고 그 범주 안에서 구체적인 평면구성과 외부공간의 분화된 양상은 서로 다르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북촌의 ‘튼ㄱ자형 한옥’을 경기형 ‘튼ㄱ자형 한옥’과 구분하여 부르고자한다.

2) 도시건축유형학적 관점(typo-morphological view)과 북촌의 튼ㄱ자형한옥

서울의 도성안과 도성주변부에 지어진 ‘튼ㄱ자형 한옥’은 경기지역의 튼ㄱ자형 한옥과 사뭇 다르다. 그것은 필지분할방식과 대지지형, 집이 지어졌던 개발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건축유형학(typo-morphology)⁵⁾의 관점에서 북촌의 ‘튼ㄱ자형 한옥’의 구성과 성격을 정의하고자한다.

도시건축유형학(typo-morphology)은 건축유형학을 도시의 영역으로 시야를 넓히면서 체계화된 연구방법론이다. 도시한옥연구에 있어서는 한 채 한 채의 조사와 분석도 중요하지만, 한옥들이 모여서 이루는 주거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중요하다. 도시에 지어지는 대부분의 한옥은 필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필지의 형태⁶⁾와 길과 필지

5) 손세관은 ‘이탈리아 피렌체의 서민주거지역의 형성과 주거형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건축역사연구 2004년 6월호) 등의 논문에서 typo-morphology를 유형형태학으로 직역하고 있다. 그러나 유형형태학이라는 용어는 도시형태학과 건축유형학을 단순히 축약한 명칭이어서, 이 연구방법이 갖고 있는 입장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 이 논문에서는 건축유형학의 연장선상에서 도시건축유형학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자한다.

4) 윤일이 조성기, 경상도 경주권과 정라도지역 상류주택 사랑채 영역의 동질성과 차이성,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14, n.11(1988-11), 209쪽

가 만나는 방식에 의하여, 새로운 건축유형이 정의되거나, 기존의 건축유형이 변형된다. 건물과 필지를 하나로 인식하고 분석할 때, 비로소 그 건축물의 구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시건축유형학의 관점에서 도시와 건축의 관계, 도시조직(urban tissue)⁷⁾과 한옥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도시건축유형학의 관점에서 북촌의 트크자형한옥을 구성하고 있는 채를 각각 안채와 바깥채로 부르는 것이 적당하다.⁸⁾ 바깥채라는 이름은 ㄱ자형 안채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면서, 도시와 건축이 만나는 필지의 경계에 놓인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북촌 트크자형 한옥의 입지와 건축연대

1) 1912년 이전의 옛 필지와 트크자형한옥

필지 분화와 도시한옥의 건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1912년 경성부지적원도와 1962년 항공사진이 있다. 1912년 지적원도는 근대적인 측량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첫 번째 지적도이다.⁹⁾ 이 지적원도와 현재의 지적도를 겹쳐보면, 1912년 이전부터 같은 형태로 지속되어온 필지와 1912년 이후에 변화된 필지를 구별할 수 있다. 한편 1962년 항공사진이 현재 구할 수 있는 사진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사진을 보전대 이미 거의 모든 필지가 한옥으로 채워져 있다. 따라서 1912년 이후에 분화된 필지에 한옥들이 집단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건설시기와 주체에 대한 내용은 앞선 연구에 정리되어있다.¹⁰⁾ 북촌의

- 6) 필지의 크기와 형상과 향 등으로 필지의 형태를 정의할 수 있다.
- 7) 도시조직(urban tissue)은 길과 필지와 오픈스페이스와 건물의 요소들로 구성된다.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인 대상이며, 외형적으로는 하나의 모습이지만, 몇 개의 켠이 겹쳐져 드러난 것이다.
- 8) 주민들은 사랑채 또는 문간채 바깥채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 9) 1908년 탁지부에 의하여 도성내의 몇몇 지역에 대한 지적원도 작업이 있었으나, 전국토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측량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912년이다.

경우,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중반에 집중적으로 대형필지가 분할되면서 도시한옥주거지가 건설된다. 그 이후 1960년대까지는 한옥이 지어지지만, 1970년대에 벽돌이나 시멘트와 같은 건설재료가 보편화되고, 생활방식도 근대화되면서 도시한옥은 거의 지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1962년 항공사진은 북촌에 한옥들이 가장 많이 들어섰을 때의 모습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 두 자료는 북촌 트크자형 한옥들의 형태발생학적 과정(morphogenesis)을 추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표-1: 북촌 트크자형한옥 목록]은 북촌에 남아 있는 59채의 트크자형한옥에 대한 기본자료이다. 지번과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지붕형태는 1912년 지적도와 1962년 항공사진 및 현재의 항공사진등을 통해 윤곽을 확인하고, 2000년~2004년에 걸친 현장 실측조사를 통해 정리한 것이다. 우선 지번을 통해 그 필지의 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계동72번지 재동33번지와 같이 모지번이 곧 그 필지의 지번인 경우는 적어도 1912년 이전의 필지경계가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필지이다. 한편 가회동 11-17 가회동31-4 삼청동35-43등은 1912년 이전에는 11번지 31번지 등으로 한 필지였었는데, 그 후에 분할된 필지이다.

계동 42, 72번지, 원서동 22, 41, 73, 148번지, 재동33번지의 7채의 한옥은 1912년 이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나머지 52개 필지는 1912년 이후에 분화된 필지로, 그 한옥들은 적어도 그 이후에 지어진 한옥이다. 이와 같이 1912년 이전의 옛 필지에 이미 트크자형한옥이 있었을 뿐 아니라, 1912년 이후에 분화된 새 필지에도 지속적으로 널리 지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¹¹⁾

10) 김난기, 한국근대화 과정의 건축제도과 장인활동에 관한 연구(홍익대 박사논문, 1989), 송인호, 도시형한옥의 유형 연구(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0), 송인호, 근대집합한옥(공간, 2003), 등 참고

11) 지금까지 1930년대에 중대규모로 건설되었던 도시한옥주거지는 ㄱ자형한옥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왔었는데, 트크자형한옥 역시 널리 선택되었던 주거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북촌 트로자형한옥 목록]

지번	소유주	신축년도	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기공형식	평면유형
가회동 1-75	정**	1939	205	102.48	트로자	ㄴ+ㄱ
가회동 11-3	박**	1935	155.4	66.12	트로자	ㄴ+ㄱ
가회동 11-9	서**	1935	181.8	82.64	트로자	ㄴ+ㄱ
가회동 11-17	이**	1935	284.3	112.4	트로자	ㄴ+ㄱ
가회동 11-38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티에스씨	1956	145.5	85.95/6.61	트로자	ㄴ+ㄱ+-
가회동 11-46	오**	1935	109.1	52.89	트로자	ㄴ+ㄱ
가회동 11-91	김**	1960	261.2	155.37/3.31	트로자	ㄴ+ㄱ+-
가회동 11-104	김**	1947/1950	86	36.36/3.31	트로자	ㄴ+ㄱ
가회동 16-8	김**	1938/1977	504.7	185.05/25.82	트로자	ㄴ+ㄱ
가회동 31-5	최**	1941	175.2	89.26	트로자	ㄴ+ㄱ
가회동 31-27	김**	1937	122.3	66.12	트로자	ㄴ+ㄱ
가회동 31-79	최**	1939	148.8	36.36/29.75	트로자	ㄴ+ㄱ
가회동 177-2	이**	1929	171.2	73.16	트로자	ㄴ+ㄱ
가회동 177-14	윤**	1928	134.5	70.78	트로자	ㄴ+ㄱ
계동 2-31	박**	1956/1940	228.1	53.75/29.75	트로자	ㄴ+ㄱ
계동 2-113	이**	1944	112.4	52.89	트로자	ㄴ+ㄱ
계동 14-5	한**	1934	198.3	95.64	트로자	ㄷ+-
계동 32-3	김**	1960	85	26.58/15.34/3.31	트로자	ㄴ+ㄱ
계동 36-13	최**	1962	210.3	79.34	트로자	ㄴ+ㄱ
계동 38-3	김**	1937	115.7	56.2	트로자	ㄴ+ㄱ
계동 38-7	김**	1939	148.8	79.74/3.67	트로자	ㄴ+ㄱ
계동 42	박**	1933	178.5	78.41	트로자	ㄴ+ㄱ
계동 72	도시개발공사	1940	257.9	128.93	트로자	ㄴ+ㄱ
계동 79-7	지**	1933	110.7	60.69	트로자	ㄴ+ㄱ
계동 79-16	이**	1923	172.6	72.89	트로자	ㄴ+ㄱ
계동 100-5	강**	1959	206.6	115.7	트로자	ㄴ+ㄱ
계동 100-7	김**	1931	173.2	68.36	트로자	ㄴ+ㄱ
계동 101-4	김**	1931	109.1	60.4	트로자	ㄴ+ㄱ
계동 101-6	김**	1930	109.1	52.89	트로자	ㄴ+ㄱ
계동 104-3	이**	1947	434	124.99	트로자	ㄴ+ㄱ
계동 104-4	박**	1947	245.3	62.81/36.36	트로자	ㄴ+ㄱ
계동 125-1	황**	1936	171.9	42.98/23.14	트로자	ㄴ+ㄱ
계동 133 4	정**	1960	155.1	88.86/11.47	트로자	ㄴ+ㄱ
계동 134-5	이**	1939	238	82.64	트로자	ㄴ+ㄱ
계동 140-39	이**	1934	135.5	70.73	트로자	ㄴ+ㄱ
계동 146-1	한송개발주식회사		1522.6	1912.08	트로자	ㄴ+ㄱ
사간동 62-1	주**	1966	476	211.47/3.83/9.55	트로자	ㄴ+ㄱ
삼청동 35-7	이**	1936	148.8	72.73	트로자	ㄴ+ㄱ
삼청동 35-43	박**	1937	93.6	42.98	트로자	ㄴ+ㄱ
삼청동 35-53	송**	1938	131.2	59.5	트로자	ㄴ+ㄱ

삼청동 35-84	이**	1943	168.6	79.34	트로자	트로자
삼청동 35-147	한**	1939	128.9	59.5	트로자	ㄴ+ㄱ
삼청동 35-207	한**	1942	156.4	79.34/3.31	트로자	ㄴ+ㄱ
삼청동 35-222	노**	1972	166.3	72.72	트로자	ㄴ+ㄱ
소격동 157-1	서**	1928	314.7	145.49	트로자	ㄴ+ㄱ+--
안국동 17-9	박**	1934	136.5	73.32	트로자	ㄴ+ㄱ
안국동 17-14	학교법인 덕성학원		178.5	78.84	트로자	ㄴ+ㄱ
안국동 17-15	은**	1934	157.4	62.97	트로자	ㄴ+ㄱ
안국동 17-18	윤**	1935	197.2	115.26	트로자	ㄴ+ㄱ
안국동 52-1	송**	1936/2000	596.7	221.49/21.76	트로자	ㄴ+ㄱ
안국동 95	송**	1937	251.2	89.26	트로자	ㄴ+--+--
원서동 13-3	신**	1937	171.9	69.43	트로자	ㄴ+ㄱ
원서동 22	박**	1949	132.2	62.81	트로자	ㄷ+ㄱ
원서동 73	한**	1961	171.9	108.43	트로자	ㄴ+ㄱ
원서동 148	김**	1958	144.6	66.12/19.8	트로자	ㄴ+ㄱ
재동 33	도시개발공사	1942	115.7	59.5	트로자	ㄴ+ㄱ
재동 46-2	오**	1937	86	42.98	트로자	ㄴ+ㄱ
재동 110-2	유**	1946	580	151.92	트로자	ㄴ+ㄱ
화동 67-1	조**	1936	185.1	95.87/16.53	트로자	ㄴ+ㄱ

2) 1930년대 도시한옥주거지와 트로자형 한옥

한편 [표-1: 북촌 트로자형한옥 목록]의 건축연대는 재산세관리대장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에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년도가 표기되어있기 때문에, 그 필지에 건물이 있었던 시기를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신축 후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세금부과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건축연도는 그 이전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가령 계동72번지의 경우, 재산세 관리대장에는 신축연도가 1940년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한 연도는 1900년 경이다.¹²⁾ 그러나 삼청동 35번지의 경우는 폐쇄지적도를 확인해가며 추정된 필지의 분할과정과 재산세관리대장의 연도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1930년대 이후에 조성된 도시한옥주거지의 경우 건축연도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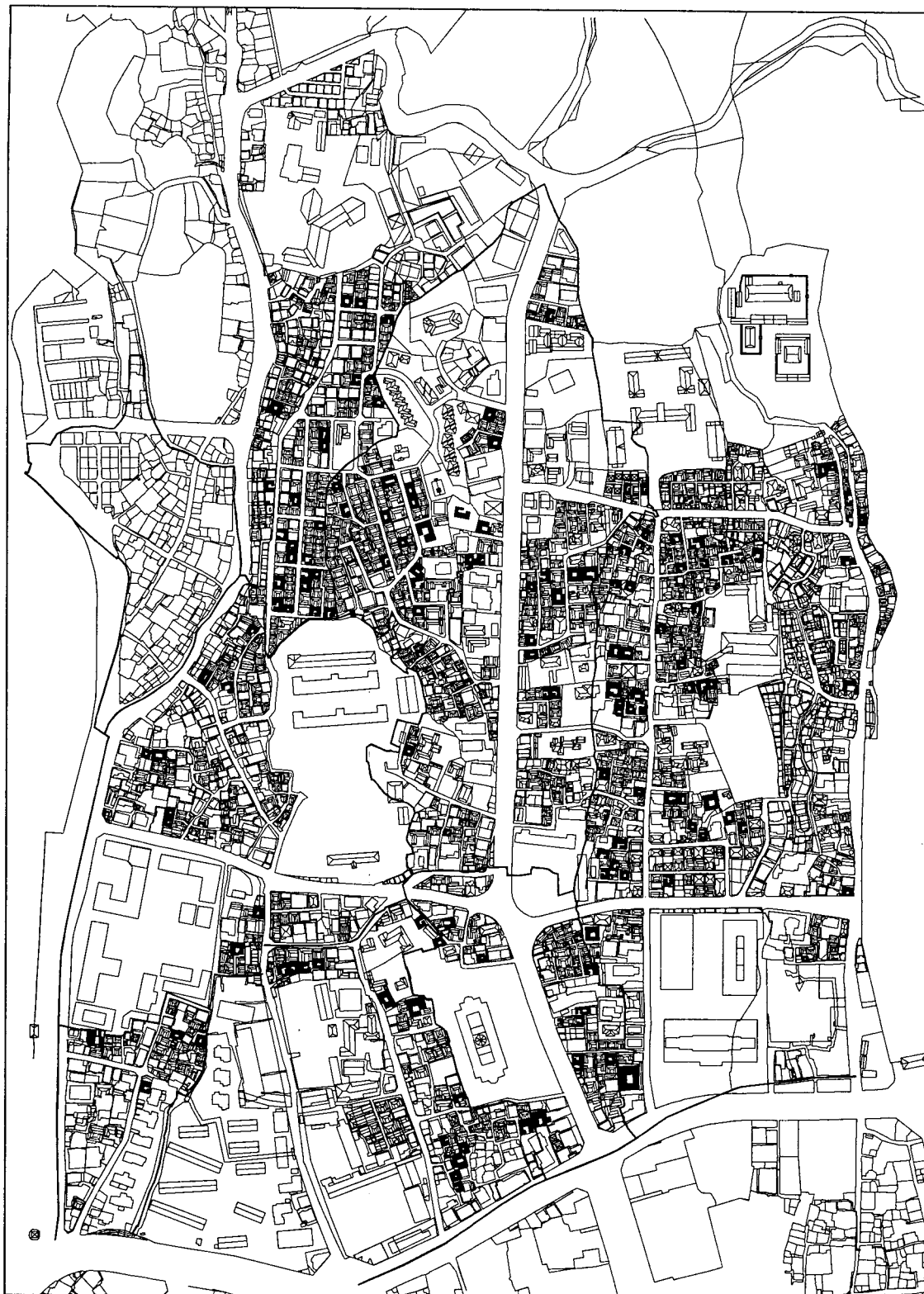
며, 다만 그 이전의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연도가 소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림-1:북촌 트로자형한옥/로자형한옥의 분포]에 예시된 한옥은 1차 연구대상인 트로자형한옥 및 로자형한옥으로 모두 140채이다. 앞서 인용한 재산세관리대장의 통계에 따르면 그 중 80%에 달하는 119채가 1945년 이전에 건축된 것이며, 전체의 절반이상이 1930년대에 지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1930년대에 주택건설업자들에 의해 폭발적으로 도시한옥주거지가 조성되어 분양되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30년대에 건설된 근대의 도시한옥주거지에서도 트로자형한옥/로자형한옥은 여전히 선호되는 주거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림-2:도시한옥주거지의 형성과 트로자형 한옥]의 도시한옥주거지는 주택건설업자들에

12) 이 논문에 연구대상으로 포함되지는 않은 계동 135번지의 경우 역시 실제 건축연도도 1900년대 초반이지만, 필지와 건물이 분할되면서 재산세 관리대장에는 1937년으로 표기되어있다.

[그림-1: 북촌 튼□자형한옥/□자형한옥(140채)의 분포]



의해 대규모로 개발 조성된 도시한옥주거지이다.¹³⁾ 이 도면은 1929년 지적도와 2002년의 지적도와 현재의 배치도를 겹쳐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도시한옥주거지가 형성되는 시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각 도시한옥주거지의 건축연도를 조사한 결과, 가회11번지 도시한옥주거지, 가회31번지 도시한옥주거지, 삼청35번지 도시한옥주거지가 1935년에 조성되었음을 확인되었다. 한편 이보다 작은 규모로 개발된 계동67번지는 1928년경에, 계동101번지는 1930년경에 조성되었다. 따라서 모 지번에 따라

[그림-2: 도시한옥주거지의 형성과 툠자형한옥]

가회11번지	가회31번지	삼청35번지
계동67번지	안국동17번지	

13) 그 당시 북촌의 상황과 주택건설방식은 정세권이 1935년 11월 [삼천리]라는 잡지에 기고한 “폭등하는 토지, 건물시세, 천재일우인 전쟁호경기래! 어떻게 하면 이판에 돈 버을까”라는 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당시 ‘경성부가 호경기를 맞이하여 1933년과 1934년 사이에 육칠천호의 주택이 신축되었으며, 특히 1935년 봄 이래로 서울의 북촌산 일대는 어느 한곳 빈틈이라고는 없이 한옥이 지어지고 있다’라고 쓰고 있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진 덕분에 ‘한번에 여하이 많이 지어 놓으래도, 채 전부 완성되기 전에 「예약제(豫約濟)」로 반분(半分) 이상이 결정되고, 전부 완성되면 곳 자리가 드러내는 형편이었다고 한다. 물론 1920년대 후반에 이미 ‘방매가(放賣家)’라는 제목으로 주택매매광고가 나오지만, 천구백삼십년대의 급속한 도시화과정과 함께 이른바 ‘건설과 분양방식’은 새로운 주택공급방식이 자리 잡게 된다. 가회동31번지와 33번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건설되고 분양된 전형적인 천구백삼십년대의 도시한옥주거지이다.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비율이상으로 툠자형한옥이 ㄷ자형한옥과 같은 다른 도시한옥 유형과 함께 건설되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경기형 툠자형한옥과 북촌 툠자형한옥의 구성

1) 바깥마당의 구성과 바깥채의 성격

[그림-3: 경기도 연다산리의 툠자형한옥]에서 보듯이 경기도에 널리 분포하는 툠자형한옥은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 사랑채가 마주 보면서, 느슨하게 대각선 방향으로 열린 ㅁ자형을 이루고 있다. 한옥 몸체만 보면 그 배치형태와 지붕의 형상은 북촌의 툠자형한옥과 동일하다. 그러나 툠자형 한옥의 안마당을 중심으로, 안채의 뒤편으로 뒷마당이 있고, 바깥채의 앞쪽으로도 너른 마당이 있다. 채의 주변에 여유롭게 놓인 마당들은 제각기 적절한 용도와 성격을 갖고 있다. 경기형 툠자형 한옥과 북촌의 툠자형 한옥은 채의 지붕구성은 비슷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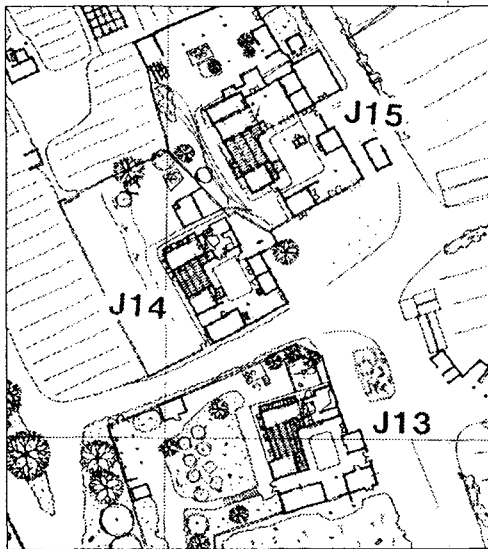
첫째 경기형 툠자형 한옥이 성격이 다른 외부공간들과 함께 여유롭게 구성되어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북촌의 툠자형 한옥의 외부공간은 간략하고 치밀하다. 도시의 좁은 대지에 놓이면서, 툠자형 한옥의 주변에 여러 모양으로 놓여있던 외부공간은 안마당과 바깥마당으로 집약된다. 안마당은 안채와 바깥채 사이에 적절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바깥마당은 바깥채의 앞쪽에 좁은 폭으로 남겨지게 된다. 인접 대지의 한옥들이 나란히 서 있는 상황에서, 이 바깥마당의 존재는 좁지만 필수적이다.

둘째 바깥채의 평면구성과 성격이 다르다. 채와 마당이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당의 변화에 따라 바깥채의 구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랑방과 헛간으로 구성되는 바깥채의 실구성은 경기형과 북촌이 동일하지만, 열려있는 방향과 마당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경기형 툠자형한옥의 바깥채는 더러 안마당 쪽을 열려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마당 쪽은 닫혀있고 바깥마당 쪽으로 열려있다.¹⁴⁾ 한편 근대도시주거지에 놓이면서 북촌의 튼□자형한옥은 길 쪽으로는 완전하게 닫힐 수밖에 없게 된다. 바깥채는 앞쪽의 바깥마당 뿐 아니라 뒤쪽의 안마당을 향해서도 동시에 개방되어있다. 대체로 남쪽 방향이 되는 바깥마당이 좁기 때문에 안마당 쪽으로 동시에 열려야만 좁은 마당을 시각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깥채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성격도 크게 약화되며, 가족 구성과 상호관계도 근대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촌의 튼□자형한옥의 기본구성은 경기형 튼□자형한옥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좁은 필지에 구성되면서 외부공간이 축약되고 채와 마당의 관계가 조정되었다. 그림으로써 경기형 튼□자형한옥과는 구별되는, 진화된 도시주택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림3] 경기도 연다산리의 튼□자형한옥 (자료: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무애건축연구실)



2) 안채의 옷방꺾음집 평면형식

14) 바깥마당이 농사일과 관련된 작업공간이면서, 마을의 공동 공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바깥채의 평면구성과 성격도 외향적인 것이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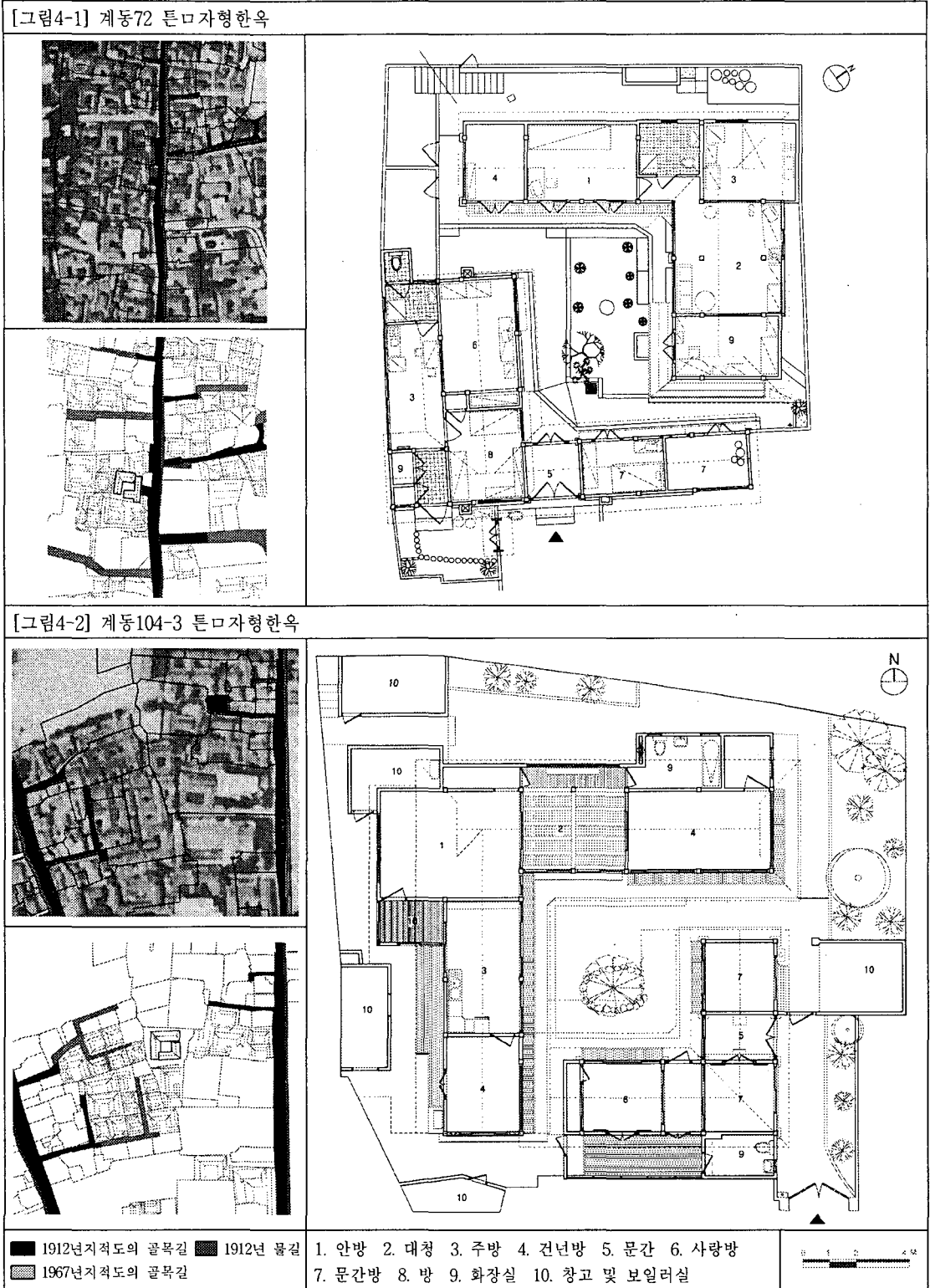
바깥채의 변화에 비하여 안채의 평면구성은 거의 변화가 없어 보인다.¹⁵⁾ 북촌에 남아있는 900여 채의 한옥은 대부분 튼□자형한옥이거나 ㄷ자형한옥이다. 튼□자형한옥의 바깥채나 ㄷ자형한옥 문간채는 규모나 대지조건에 따라 평면형식이 달라지지만, 안채의 평면형식은 거의 동일하다.

옷방꺾음집이라 불리우는 안채의 평면형식은 옷방을 모서리로 하여 ㄱ자형을 이루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ㄱ자형으로 꺾이는 부분의 구성이다. [그림4-2]의 안채에서 보듯 안마당에 면하여 안방(1)이 반 칸 물리면서 구성된다. 인접 대지와 바깥 붙어있는 상황에서, 안방에 채광과 환기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해법이다.¹⁶⁾ 또한 그 창호를 통해 안마당을 살필 수 있으며, 부엌으로부터 작은 상을 들이는 등 평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 물론 [그림5-1]에서 보듯 대청이 ds 전한 두 칸 깊이로 깊어지는 경우 안방이 안마당에 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북촌 튼□자형한옥의 대부분은 반 칸 엇물리면서 안방이 구성된다.

한편 꺾이는 부분의 지붕은 풀이 만들어지는 회침부분이다. 기둥머리에 부재가 집중되는 부분이어서, 구조적으로도 하중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다. 반 칸 간격으로 두 개의 기둥이 놓이게 되어, 하중을 분담하고 안정된 구조체계를 가지게 된다.¹⁷⁾ 반 칸이 어긋나면서 구성되는 안채의 평면구성은 좁은 대지에 놓여지는 북촌 튼□자형한옥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¹⁸⁾

- 15) 안채 평면은 일반적인 경기형민가의 안채평면과 유사하다. 대청을 중심으로 동쪽에 건넌방이 서쪽에 안방이 구성되고, 안방에서 꺾이어 부엌과 아랫방이 구성되는 이른바 옷방꺾음집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16) 경기형 튼□자형 한옥의 경우 안방은 뒷마루를 사이에 안마당에 면하면서, 뒤쪽으로 창을 갖는다.
- 17) 꺾이는 부분의 바깥쪽 지붕구조 역시 충량과 추녀와 직교 방향으로 만난 도리들이 입체적으로 결구되어야하기 때문에 까다롭다.
- 18) 북촌의 다른 도시한옥과 같은 원리로, ㄱ자형 안채를 대지의 안쪽에 남향으로 놓이고, ㄷ자형 바깥채는 한쪽 날개(문간이 구성되어있는 날개)가 길 쪽으로 놓이면서 길의 표층을 구성한다.

[그림4: 골목과 뜬자형한옥]



[그림5: 경사와 뜰자형한옥]



5. 북촌 트크자형한옥의 변형

1) 골목과 트크자형한옥

북촌은 북악과 응봉을 잇는 능선에서 남쪽으로 전개되는 구릉지에 몇 가닥 물길을 중심으로 동네가 좁고 길게 형성되어 있다.¹⁹⁾ 그리고 물길을 따라 오르면서 길 양편으로는 작은 필지들이, 길 안쪽 끝 지형이 높은 곳에 중대형 필지들이 놓여 있다. 이처럼 필지의 형태는 일차적으로 도시적 위상과 관련 있으며, 그 위상은 지형과 무관하지 않다. 1912년 이전의 옛 필지위에 지어진 트크자형한옥들은 이처럼 낮은 지역의 남북방향 옛길에 면해 있다. 한편 1930년대에 형성된 도시한옥주거지에 지어진 트크자형한옥은 기존의 중대형 필지가 분화된 필지에 건축되기 때문에, 옛길의 안쪽 또는 경사지를 정리하여 새로 조성한 골목길에 면해 있다. 그런데 가회동 11번지와 같이 비교적 개발규모가 큰 경우는 남북방향의 뚝린 골목에 면하여 한옥이 놓이지만, 계동104번지와 같은 경우는 막힌 골목이나 동서방향의 골목에 면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트크자형한옥의 변형이 발견된다.

[그림4-1]의 계동72번지의 트크자형한옥은 남북방향의 옛길에 면해있고, [그림4-2]의 계동 104-3번지의 트크자형한옥은 막힌 골목의 끝에 면해있다. 계동 길에 면하여 옛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필지들을 여러 개 발견할 수 있는데, 계동72번지 한옥은 그러한 옛 도시조직과 함께 남겨진 전형적인 트크자형한옥이다. 계동길과 문간 사이에는 작은 외부마당이 남겨져있는데, 이는 오랜 시간을 두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옛 도시조직에서 나타나는 흔적이다.²⁰⁾ 한편 계동104-3번지는 계동

104-3은 1947년경에 분할된 필지이다. 낮은 구릉의 끝자락에 있던 제법 큰 필지가 여섯 개로 분할된 필지 중, 가장 안쪽에 위치한 필지이다. 전체적으로 L자형태의 막힌 골목의 끝에 놓여있는데, 조금의 여유도 없이 필지의 모서리로 골목길이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1912년 이전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계동72번지와 1947년경에 개발된 계동 104-3번지의 도시조직은 대조적이다.

트크자형 한옥을 안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필지가 필요하다. 안채의 남면 폭을 네 칸 내지 다섯 칸으로, 바깥채의 깊이를 한 칸으로 잡더라도 필지의 폭은 적어도 십오 미터 이상은 되어야 한다. 길이는 길에 면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역시 비슷한 크기가 필요한데, 대개 바깥채의 남쪽에 바깥마당이 놓이는 것을 고려하면 동서방향의 폭보다 남북방향의 길이가 긴 필지가 더 적합하다. 계동 72번지의 경우 한 변이 십육 미터 정도이고, 대지규모는 78평이다.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의 길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7자형 안채와 L자형 바깥채가²¹⁾ 축을 맞추어 편안하게 놓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채와 바깥채가 약간 비스듬한 각도를 이루면서 엇물리게 배치하였다. 바깥채 남쪽 마당이 삼 미터 폭이 채 안되게 남겨질 수밖에 없는데, 바깥채를 약간 틀어서 안침으로써 좁은 느낌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안마당의 남쪽 모서리가 조금 더 열릴 수 있도록 하였다.²²⁾

한편 계동104-3의 트크자형한옥은 대지규모가 151평으로, 계동72의 트크자형한옥보다 훨씬 크다. 그러나 건축면적은 37평으로 비슷하다. 막힌 골목의 연장선상에서 입구마당을 만들고, 다시 문간을 거쳐 안마당으로 진입하도록 하였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지조건을 대지 내부에서 극복하고 있다.

들어가기에 앞서 길과 집을 이어주는 여유 공간의 역할을 하며, 제법 넓은 경우는 텃밭이 꾸며지기도 한다.

19) 상대적으로 물길과 물길 사이는 높은 지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능선들이 각각 삼청동과 가회동과 계동과 원서동의 경계이다. 1912년 지적원도를 보면 안국동 재동 화동 원서동 등 궁궐에 인접한 지역과 두 궁궐을 길 주변에는 작은 필지들이 밀집해 있다.

20) 계동이나 소격동과 같이 오래된 전통도시주거지를 살펴보면, 짧은 골목길들이 작은 필지들이 연결하면서, 한 두 차례 꺾이다가 그 끝에서 주먹모양의 공터로 마무리되는 도시조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그물형의 도시조직은 중대규모의 블록이 길에서 안쪽을 향하여 조금씩 분할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좁은 골목길의 끝부분에 집안으로

21) 역 7자형 안채와 역 L자형 바깥채가 정확한 표현이지만,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자형과 L자형으로 표현한다.

22) 현재 계동72한옥은 안방과 부엌의 위치가 맞 바뀌면서 평면이 크게 변형되었다. 바깥채도 바깥마당까지 증축되면서 많이 변형되었다.

2) 경사지에 지어진 ㄷ자형 한옥

가회동31번지와 33번지, 가회동26번지(현재 가회동11번지일대)등, 현재 비교적 한옥마을로서의 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주거지는 대부분 1930년대에 건양사나 경성목재점과 같은 주택경영회사에 의하여 개발되고 분양된 한옥들이다.²³⁾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대형필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 단의 레벨로 정리되면서 필지가 조성되었다. 따라서 북촌의 많은 한옥들은 경사진 대지에 놓이면서, 다양한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지내의 레벨 차이는 ㄷ자형 한옥의 외부공간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준다. [그림5-1]의 항공사진과 배치도에 표현된 가회동11번지일대의 도시한옥주거지는 1935년경 필지가 분할되고, 도시한옥이 건설된 주거지이다.²⁴⁾ 서사면을 정리하여 몇 개의 레벨로 대지를 조성하고, 남북방향의 골목길을 중심으로 한옥들을 배치하고 있다.²⁵⁾

가회동11번지 도시한옥주거지의 ㄷ자형 도시한옥들 사이에, 상대적으로 큰 필지에는 ㄷ자형 한옥이 놓여있다. 가회동11-17번지의 ㄷ자형 한옥은 전체 대지규모는 86평으로, 필지가 정형이고 비례도 남북방향이 동서방향보다 길어서 ㄷ자형 한옥을 배치하기에 유리하다. 한번 꺾어서 남향대문으로 진입하는 방식도 여유롭고 풍부하다.²⁶⁾ 그리고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 바깥채가 맞

물리는 방식도 정연하다. 바깥채의 남쪽으로 삼미터 남짓한 좁고 긴 마당이 남겨져있는데, 공간적으로 안마당과 명확하게 구분되어있다.²⁷⁾

한편 [그림5-2]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가회동31번지 도시한옥주거지이다. 가회동 31-4의 ㄷ자형 한옥의 바깥마당과 안마당의 레벨차이가 더 크다. 남쪽 대문으로 들어서면 계단이 있고 문간을 거쳐 안마당으로 들어서게 된다. 바깥마당은 안마당과 비슷한 레벨에 두면서 그 아래 차고를 두고 있다. 대지의 안의 레벨 차이 덕분에 외부공간을 입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6. 결론

‘북촌의 ㄷ자형 한옥’은 ‘경기형 ㄷ자형 한옥’이 도시필지에 놓이면서 변형된 한옥유형으로 1912년 이전의 옛 필지에서 뿐 아니라, 1930년대에 형성된 도시한옥주거지에서도 널리 분포하고 있다. 경기형 ㄷ자형 한옥에 견주어 북촌의 ㄷ자형 한옥의 구성과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촌의 ㄷ자형 한옥’은 ‘경기형 ㄷ자형 한옥’이 도시필지에 놓이면서 변형된 한옥유형이다. 도시의 좁은 대지에 놓이면서, ㄷ자형 한옥의 주변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놓여있던 외부공간은 안마당과 바깥마당으로 집약된다. 바깥마당은 바깥채의 앞쪽에 좁은 폭으로 남겨진다. 도시의 작은 필지에 놓이면서 안채와 바깥채, 안마당과 바깥마당으로 구성된다.

둘째, ㄷ자형 한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필지가 적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필지의 비례이다. 바깥채의 남쪽으로 좁지만 분화된 바깥마당을 갖기 위해서는 남북방향이 동서방향보다 약간 긴 필지가 ㄷ자형 한옥을 구성하기에 유리하다.

27) 가회동11-17의 ㄷ자형 한옥은 상대적으로 남북방향으로 긴 필지형상 때문에, 장독대는 북동쪽 모서리의 열린 부분에 놓여있다. 계동72번지 한옥의 경우 남동쪽 모서리의 열린 공간에 장독대가 있다. 부엌에서 동선이 가까울 뿐 아니라, 별이 잘 드는 자리이다.

23) 1930년대에 서울의 행정경계가 확장되고, 도시구조도 근대적으로 변형된다. 이 시기에 주택경영회사들은 북촌의 대형 필지와 임야를 매입하여, 그 자리에 중소규모의 한옥들을 집단적으로 건설하였다.

24) 가회동11번지 도시한옥주거지는 1929년 지적도에 따르면 가회동 26번지이다. 당시 유흥가였던 한창수씨의 소유로 약2700평 규모의 대형필지였다.

25) 남북방향의 길을 중심으로, 남쪽 또는 동쪽으로 열린 ㄷ자형 평면의 도시한옥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남북방향의 골목길과 남쪽으로 열린 ㄷ자형은 동시에 건설된 것으로,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도시 속에서 한옥이 향(向)에 대해 열려있으면서 길에 대해 닫혀있는 마당을 가질 수 있는 구성방식이다.

26) 남북방향의 골목길에서 필지 남동쪽에 있는 계단을 오르면, 전면에 바깥마당으로 들어가는 문간이 있고, 오른쪽(북쪽)으로 안마당으로 들어가는 문간이 있다.

셋째, 바깥채는 안마당과 바깥마당에 양쪽으로 면하면서 보다 개방적인 공간으로 역할하게 된다. 한편 옷방꺾음집이라 불리는 ㄱ자형 안채의 평면의 성격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안마당에 면하여 안방이 반 칸 물리는 평면형식이 보편화된다. 그 부분의 창을 통하여 안방에 채광과 환기가 가능하게 되며 안마당과 문간을 살필 수 있다. 꺾이는 부분은 기둥머리에 부재가 집중되는 부분이어서, 반 칸 간격으로 두 개의 기둥이 놓임으로써, 하중을 분담하고 안정된 구조체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서로 다른 도시조직위에 놓인 네 채의 트크자형 한옥을 통하여, 골목과 경사란 조건에 따라 북촌의 트크자형 한옥의 변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골목과 만나는 방식에 따라 바깥채와 바깥마당의 구성이 달라지며, 경사는 외부공간의 구성과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준다.

ㄷ자형 도시한옥은 ㄱ자형 안채와 일자형 문간채가 일체화된 ㄷ자형으로 진화되면서 완성된 것이다. 그것은 서울 도성안과 도성주변부에 근대 주거지가 형성되는 1930년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전통적인 도시주택유형이다. 한편 북촌의 트크자형 한옥은 근대 이전부터 북촌에 있어왔던 주거 유형이다. 그것은 경기지역의 트크자형 한옥이 도시조직위에 놓이면서 부분적으로 구성과 성격이 변이(mutation)된, 또 하나의 전통적인 도시주택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경성부 발행 지적원도, 1912
2. 서울시 항공사진 측량도, 1991.10. 23 발행
3. 서울특별시 항공사진측량 현황도, 1962
4. 무애 건축연구실, 가회동 한옥보존지구, 1986
5. 무애 건축연구실, 도시형 한옥 실측조사 보고서, 1990
6. 서울의 도시한옥주거지, 서울학연구소(서울시립대학교 역사도시건축연구실), 2002
7. 서울특별시, 북촌 가꾸기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2001
8. 서울특별시, 북촌 가꾸기 기본계획 한옥실측도면집,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2001
9. Anne Vernez Mouden, Getting to Know the Built Landscape: Typomorphology, ORDERING SPACE, Karen A. Frank, Lynda H. Schneekloth, VNR, 1994
10. N.J.Habraken, The Structure of the Ordinary, The MIT Press
11. 송인호, 도시형한옥의 유형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0
12. 송인호, 조준범, Four Types of Urban Tissue in the Traditional Urban Housing Neighborhood of Bukchon, Seoul, 현대 동아시아와 전통건축(한국건축역사학회 국제학술대회는문집) 2002
13. 김화봉, 安東文化圈 들집의 '直交도리' 構造에 관한 研究, 건축역사연구 2004년6월호
14. 조준범, 도시건축제도와 서울 북촌의 도시조직의 변화, 서울시립대학교 박사논문, 2003

Typomorphological Study on Open-rectangular plan Hanok in the Traditional Urban Housing Neighborhood of Bukchon, Seoul

Song, Inho

Professor,

(Faculty of Architecture,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Open-rectangular plan Hanok is one of the major types that compose the urban tissues of Bukchon, a typical traditional residential area in Seoul.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cadastral map of 1912 and the aerial photograph of 1962, the paper has given the outline of the and the distribution of Open-rectangular plan Hanok at Bukchon.

And the paper defines the characteristics of Open-rectangular plan Hanok at Bukchon as followings. First, Open-rectangular plan Hanok at Bukchon is the mutated type of Open-rectangular plan Hanok in Kyong-gi Province. Second,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Bakat-chaе and outer-courtyard have been changed through the adaptation itself to the compact lots of urban neighborhood. Third,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An-chaе has not been changed except the inner corner bay, that gives the lights and view to An-bang through the window.

And the comparison and observation of four examples, the paper defines the identities of Open-rectangular plan Hanok at Bukchon. The partial transformation comes from the conflicts and adjustments with the structure of alley and the topographical condition of lots.

Keywords : Bukchon, open-rectangular plan Hanok, typo-morphology, type, urban tissue,
urban traditional housing neighborhood,
